

##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 분석 체계 및 방법 고찰

김호정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국어교육연구소 겸무연구원(제1저자)

이원기 Purdue University, Curriculum and Instruction 박사과정(공동저자)



- I. 서론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III. 연구 결과
- IV. 논의 및 제언
- V. 결론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 분석(error analysis) 현황을 고찰하고 오류 분석 방법의 체계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피동 표현에 대한 기왕의 오류 연구에서 오류 설정 기준 및 유형화 등의 분석 체계와 오류 분석 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보자 한다.

Corder(1974: 24)에 따르면, 오류 분석은 ‘언어 코퍼스의 선택(selection of a language)’, ‘코퍼스 내 오류의 확인(identification of errors in corpus)’, ‘확인된 오류의 분류(classification of the errors identified)’, ‘오류의 심리언어학적 원인 기술(explanation of the psycholinguistic causes of the errors)’, ‘오류(와 그 중요도) 평가(evaluation(error gravity ranking) of the errors)’의 다섯 단계를 밟는다. 즉, 교육 목적의 오류 분석은 학습자 오류의 유형화를 통해 원인을 추적하고 오류의 심각성을 평가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한 뒤 교육적 처방을 내리는 단계까지 나아간다(Corder, 1981). 이처

럼 오류 분석은 교수자에게는 학습의 목표 수준을 제시해 주고, 연구자에게는 언어 습득, 전략 사용의 증거를 제시해 주며, 학습자에게는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 자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Corder, 1967).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 기반의 언어 분석 방법이 많은 성과를 내면서 이에 힘을 입은 L2 오류 연구의 중요성도 더욱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류 분석은 오류 확인과 유형화가 힘들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Corder, 1967; Richards, 1971; Ellis, 2008; Hinkel, 2018; Nassaji, 2018 등). 전자의 문제로는 오류와 실수(mistake) 구별의 어려움, 동일 오류의 복수 유형화 가능성<sup>1)</sup>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류는 학습자의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자가 수정이 어려운 반면에, 실수는 수행상 요인<sup>2)</sup> 때문에 발생하여 자가 수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로 인해 이 두 가지 유형에 적합한 교육적 처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의 변별이 결코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Nassaji 2018: 2734). 후자, 즉 오류 원인 파악의 문제로는 L1 전이 오류와 발달 오류 구별의 어려움이 지적된다. 일반적인 예견과 달리, 학습자 모어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목표어 습득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발달 오류의 빈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Ellis, 2008). 따라서 언어 내적(intralingual errors or developmental errors) 또는 언어 간 오류(interlingual errors) 발생에 관련된 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James, 1998)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류 양상과 세밀한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오류 분석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앞서 제시한 오류 분석의 거시적인 방법과 절차

1) Hinkel(2018: 2730)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예컨대, ‘We saw boy in the park.’와 같은 학습자 발화에서 ‘boy’가 잘못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오류를 ‘a boy’를 잘못 사용한 ‘관사 오류’로 볼 수도 있지만, ‘boys’를 잘못 사용한 ‘명사 복수화 오류’로 볼 수도 있다.

2) 기억력, 주의, 피로 등의 언어 수행 과정 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리킨다.

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미시적 차원의 오류 분석 기준, 방법, 세부 절차는 오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입장 차이에 따라 상이점이 나타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을 실시하고, 그간의 오류 분석 결과를 분석 체계와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류 분석 방법의 근거, 실행 과정의 장·단점 및 특성을 조망하고, 향후 오류 분석 연구의 체계화 및 타당화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 제2언어교육에서의 학습자 오류 연구

제2언어교육에서는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일찍부터 많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먼저, Richards(1971), Corder(1974, 1981)에서는 내용적인 접근 방식에 근거하여 오류 유형을 구분하였다. Richards(1971)에서는 간섭 오류(interference error), 언어내적 오류(intralingual error), 발달 오류(developmental error)의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이 유형은 각각 음성적 오류, 음운적 오류, 의미적 오류, 통사적 오류, 화용적 오류로 세분화된다. Corder(1974)는 오류 발생의 원인에 따라 오류를 언어 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언어 내적 전이(intralingual transfer),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오류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는 특히 초급 단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표현 가능한 문형 사이의 괴리로 인해 이들 오류가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Burt(1975)와 Dulay, Burt, & Krashen(1982)에서는 형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오류를 유형화하였다. 특히, Burt(1975)는 형식적인 접근인 오류의 판정에 의한 분류를 시도하여 총체적 오류(global error)와 국소적 오류(local error)로 구분하였다. 총체적 오류는 전체 문장의 조직에 영향을 주는 오류를 지칭하며, 국소적 오류는 의사 전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간단한 문장성분에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그는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총체적 오류 유형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정희(2002)는 Corder(1981: 23)에서 제시한 오류 분석의 5단계('자료의 선정', '오류의 식별', '오류의 분류', '오류 설명', '오류 평가')가 명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오류 판정과 유형 분류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오류 판정에 유용한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이훈호(2015)에서는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어 오류 분석 연구의 동향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 분석의 여러 전제, 도구와 틀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영어권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한국어 오류 분석에 적절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였다.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법, 그 중에서도 피동의 문법 현상 또는 표현을 대상으로 오류 분석의 세부 기준 및 분석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왕에 진행된 오류 분석의 체계와 방법을 고찰함에 있어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연구 방법을 동원하였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특정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선정기준에 맞는 모든 근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법”(김수영·박지은·서현주·서혜선·손희정·신채민 외, 2011: 1)으로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 (1) 문헌 검색: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명확하고 재현 가능한 검색전략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단계

- (2) 문헌 선택: 명확한 포함/배제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는 단계
- (3) 문헌 분류: 선정된 문헌에 대해 연구 설계를 분류하는 단계
- (4) 자료 추출: 포함된 문헌에 대해 필요한 값들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코딩하는 단계
- (5) 연구의 비뚤림 위험 평가: 각 연구 설계에 맞게 개발된 비뚤림 위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선정된 연구의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는 단계
- (6) 자료 분석과 결과 제시: 정성적 합성 또는 정량적 합성(가능한 경우에만)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표와 그림 등으로 제시하는 단계
- (7) 결론 도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단계

위와 같은 연구 절차로 진행되는 체계적 문헌 고찰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상 이점을 지닌다. 첫째,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문헌을 검색하여 효율적으로 연구 문제에 대한 정보 수합이 가능하다. 둘째, 사전에 계획된 기준에 의거한 연구를 수행하므로 절차가 명백하고 재생산 가능하여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셋째, 체계적인 검색 및 비뚤림의 위험이 적은 문헌을 선택함으로써 합리적인 해석과 결과 도출의 가능성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방법론상의 이점을 근거로 체계적 문헌 고찰의 연구 방법과 절차를 준용하였다. 이에, 먼저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 대상 문헌 검색 및 선정을 위해 문헌 고찰 시 널리 이용되는 국내외 웹 기반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는 RISS, KISS, e-article, DBpia의 총 4개이며, 자료 누락 방지를 위해, 1)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 재검색 2) Google Scholar를 이용한 교차검색 3) 복수의 연구자가 교차 검색을 시행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어교육’, ‘피동’을 키워드로 and 연산자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 RISS에서 214편(학위논문 153편, 국내학술지논문 61편), KISS에서 학술지 55편, 학술교육원 e-article에서 14편, DBpia에서 6편이 검색되었다. 이어 ‘오류’ 키워드를 사용하여 재검색한 결과, RISS에서 81편,

KISS에서 2편, e-article에서 2편, DBpia에서 2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이후 ‘오류’ 키워드 검색 활용에 따라 일부 배제된 논문이 확인되어 복수의 연구자들 간에 논의를 거쳐 해당 논문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으로 제공한 논문을 정렬하고, 중국어, 일본어 등에 관련된 논문을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총 100편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이어, 100편의 논문 가운데 학습자의 실제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타인이 연구한 오류를 분석한 경우, 피동 표현 오류가 주된 연구 목적이 아닌 경우<sup>3)</sup> 등을 제외하고 총 14편을 최종 목록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방법 및 절차

① 모든 기간의 RISS, KISS, E-article, DBpia에서 키워드 검색(전체검색 : ‘한국어교육’ and ‘피동’)	→	RISS : n= 214 KISS : n= 55 e-article : n=14 DBpia : n= 6
② ‘오류’ 연구로 분야 제한 (=and ‘오류’)	→	RISS : n= 81 KISS : n= 2 e-article : n=2 DBpia : n= 2
③ 제외된 문헌 중 ‘오류’ 연구를 포함하는데 검색어 처리로 인하여 배제된 논문 포함	→	RISS : (학위논문 n= 57, 국내학술지논문 43) KISS : n= 3 e-article : n=2 DBpia : n= 2
④ 중복 문헌, 외국어로 쓰인 논문 및 한국어교육 이외의 분야 제외	→	n=100
⑤ 학습자 실제 오류가 없는 경우, 오류를 재인용한 경우, 오류 연구가 아닌 경우 제외	→	n=14

- 3) 학술 작문에서 나타나는 오류 중 피동 표현 오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학습자 구어의 특징 중 일부 피동 표현 오류의 자료를 포함한 경우를 가리킨다.

### III. 연구 결과

#### 1. 학습자 오류 연구 현황

본고에서 DB 검색을 통해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14편의 연구물이 발표된 시기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기별 연구 발표(편)

년도	2003	2004	2008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편(수)	1	1	1	1	2	3	1	3	1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2003년 한·일 대조분석을 기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소수의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들 연구를 게재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학위 논문이 11편(석사 논문 10편, 박사 논문 1편), 학술지 논문이 3편인 것으로 확인되어 학위 논문이 더 많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각각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오류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주제 및 주요 연구 결과

연번	연도	연구 유형	연구 주제	주요 연구 결과
1	전나영 (2003)	학위 논문	일·한 대조분석을 통한 일본어 학습자의 피동성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일본어 학습자 오류와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 요목 선정 및 교수 방안 탐색	한국어 피동성 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을 상정하고, 교수 내용은 일본어권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교수 모형을 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단계화해야 함을 제시

2	이효숙 (2004)	학술지	일본인 학습자들의 피동 오류 분석 및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한 '-이-'형(形) 접미사 피동과 '-아/어지다'형(形)에 의한 피동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 방안 제시	안정적인 일본어 피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인 학습자들의 피동 이해 및 오류 원인 분석,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 분석을 통한 형태 중심의 교수에 대한 대안으로서 '구문론적 피동 교수'의 구체적 교수 방안 제시
3	우삼삼 (2011)	학위 논문	한국어 피동표현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어 피동표현과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 설문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의 원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모색	교재 분석을 통해 1) 어휘적 피동표현, 행위주 표지 실명 누락 2) 문형에 대한 설명, 복습이나 확장 학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 학습자 오류의 원인으로 1) 서술의 초점을 문장 맥락에서 구별하지 못하는 점 2) 피동사의 변형에 치중하여 조사의 선택 제약 이해 오류 3) 한국어 피동표현 간 의미 차이 구분 등을 주장
4	곽옥 (2012)	학위 논문	한국어와 중국어의 피동표현의 대조분석 및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시	다양한 교재 분석 및 학습자 오류 유형 분석을 통해 오류 해결 방안과 교수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문법 설명 시 중국어를 사용한 교수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
5	노뢰 (2012)	학위 논문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 양상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교육 모형 탐색 및 검증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focus on form)을 적용하여 한국어 피동 교육의 개선 방향 제시.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은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능력도 향상된다고 주장
6	유배 (2012)	학위 논문	학습자 입장에서 피동문 학습 곤란을 야기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피동문 교수·학습 방안 제시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를 제시하고, 오류를 범하는 주된 이유로 모국어 간섭과 한국어 교재를 들었으며, 이를 PPP 접근법을 통한 교수로 보완 및 개선하는 방안 제시
7	전천 (2013)	학위 논문	한·중 피동 표현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오류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피동 표현 오류 양상 및 원인 분석을 통한 피동 교수 방안 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피동표현 오류 양상과 원인을 1) 피동 접미사 사용 오류 2) 통사적 피동표현에 대한 오류 3) '되다, 받다, 당하다'의 혼용 오류 4) 능동주 표지에 대한 오류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 및 교육 방안을 제언
8	송정애 (2015)	학위 논문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내용 및 학습자 오류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의 어휘와 상황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피동 교육방안 설계	결혼 이민자들은 어휘별, 문항 유형별로 피동 오류를 편차가 심하여 다양한 어휘의 피동형에 대한 교수가 필요함을 제시. 또한, 결혼 이민자의 경우 생활에서 노출이 많고 구어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휘더라도 학습으로 이어지지는 못함을 보임

9	장영개 (2015)	학위 논문	피동표현에 대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분석을 통해 한국어 피동표현의 제약을 밝히고, 한국어 피동표현 오류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피동표현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	능동주 표지 오류 중 ‘-아/어지다’피동 교수의 필요성 제시, 통사적 피동 표현의 경우 ‘-아/어지다’와 결합하여 실현되지 않는 경우 제약 교수의 필요, ‘-되다/-받다/-당하다’의 경우 불필요한 곳에 남용됨을 밝히고 교수 방안 제시
10	주위나 (2016)	학위 논문	한·중 피동문의 구조적 차이에 기반한 중국인 학습자의 피동문 오류 연구	중국어 학습자들의 피동 학습 곤란에 대하여 인식, 지식, 교재의 차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문장 유형별 수업 및 피동표지, 조사와 피동문의 문장 기본구조 명시 제안
11	사마 와디 (2011)	학위 논문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 문법 중 피동 표현의 개념, 유형, 피동 표현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한·태 언어 대조를 통해 태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피동 오류와 그 양상, 원인에 대해서 고찰한 후 한국어 피동 표현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수 순서 및 교수 방안 제시
12	이효숙 (2008)	학술지	한국어 피동·사동 표현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 문법서 및 교재 분석과 학습자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문법서에서 피동·사동이 기술되는 양상을 살피고, 교재에 제시된 설명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학습자 오류 양상과 그 유형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피동·사동 교육을 위한 기반 제시
13	진강려 (2010)	학술지	고급 학습자를 위한 피동 표현 교수·학습 연구	피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개념 및 특징을 정리하고, 중·한 피동 표현의 대조 분석 후 학습자 피동표현의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여 ‘전체적 오류’와 ‘부분적 오류’의 오류 양상을 제시하여 고급 학습자를 위한 지식과 활용의 과리 해소 주장
14	유경옥 (2016)	학위 논문	한·중 피동 표현 대조 분석을 통한 피동 표현 오류 원인 및 피동 표현 사용 실태 분석 및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2005: 281)의 형태적 피동, 어휘적 피동, 통사적 피동과 중국어 피동 표현 대조를 통한 공통점 및 차이점 도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명시적 교수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 2. 학습자 오류 분석 체계

### 1) 오류 양상 분석 기준

학습자 피동 오류 양상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파악되었다. 첫째, 오류가 나타난 문법 현상 또는 문법 요소를 기준으로 오류 양상을 분석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형태적 피동 표현, 통사적 피동 표현, 어휘적 피동 표현, 조사, 주어, 문형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오류를 유형화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표 4> 문법 현상 및 문법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오류 양상

연구 제목 (연도)	오류 분석 기준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성 표현의 교수 모형 (전나영,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의 잘못된 사용</li> <li>피동과 능동의 혼동</li> <li>피동문을 구성할 수 없는 동사, 형용사, 체언에 피동 형태 결합</li> <li>어휘적 피동 오류</li> <li>관용적 피동성 표현의 잘못된 구성</li> </ul>
한국어교육에서의 효율적인 피동 교수 방안: 한·일 대조 분석을 중심으로 (이효숙,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의 잘못된 사용</li> <li>능동과 피동의 혼용</li> <li>능동과 사동의 혼용</li> <li>피동사(문)을 사용할 수 없는 맥락에 피동사(문)사용</li> </ul>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방안 고찰 (곽옥,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능성과 능력이라는 의미 혼용 오류</li> <li>능동사와 피동사 혼용</li> <li>피동사를 능동사로 사용하는 경우</li> <li>피동 표현 선택 오류</li> <li>‘안’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인한 오류</li> </ul>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뇌퇴,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동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오류</li> <li>주어의 잘못된 사용</li> <li>격조사의 오용</li> <li>피동과 사동의 혼동</li> </ul>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유배,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의 오용 및 혼용</li> <li>피동 접사 간, 어휘적 피동표현 간 혼동</li> <li>피동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는 구문에 능동사 사용</li> </ul>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교육 방안 연구 (송정애,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사 파생적 피동 표현 오류</li> <li>통사적 피동 표현 오류</li> </ul>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장영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 오류</li> <li>형태적 피동 : 피동 접미사의 잘못된 선택</li> <li>형태적 피동 : 접미사 결합 없이 능동사</li> <li>통사적 피동 : 통사적 피동과 접미사 피동의 혼동</li> <li>통사적 피동 : 결합하는 선행사에 대한 지식 부족</li> <li>어휘적 피동 : 되다, 빈다, 당하다가 결합하는 선행사 모름</li> </ul>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피동문 오류 연구 (주위나,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적 오류 : 피동사구 오류</li> <li>• 형태적 오류 : 피동사 오류</li> <li>• 통사적 오류 : 조사 오류</li> <li>• 통사적 오류 : 행위주 생략 오류</li> </ul>
한국어 피동·사동 표현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 한국어 문법서 및 교재 분석과 학습자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최해주,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동 접사의 형태 오류</li> <li>• 피동문 내에서의 조사 결합 오류</li> <li>• 형태적 피동의 기피 또는 통사적 피동의 일반화</li> <li>• 이중 피동의 오류</li> </ul>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연구: 한·중 피동 대조를 중심으로 (유경옥,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적 피동 표현 오류</li> <li>• 어휘적 피동 표현 오류</li> <li>• 통사적 피동 표현 오류</li> </ul>

둘째, 오류 문법 현상/요소와 함께 ‘대치, 누락, 과잉’과 같은 오류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피동 표현의 오류 양상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아래 〈표 5〉와 같은 경우 주로 ‘대치’ 오류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세부 기준으로 능동문과 피동문, 통사적 피동과 형태적 피동사 사이의 대치 오류와 형태적 피동사 간, 조사 간 대치 오류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표 5〉 문법 현상 및 오류 유형 분류 기준을 적용한 경우

연구 제목(연도)	오류 분석 기준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수 방안: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우삼삼,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 피동 구분 오류</li> <li>• 조사 사용 오류</li> <li>• 피동 접사 대치 오류<sup>4)</sup></li> <li>• –아/어지다’에 의한 통사적 피동표현 오류</li> <li>• 어휘적 피동 표현 오류</li> </ul>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연구 (사마와디,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동 표현 개념과 관련된 오류</li> <li>• 피동 표현 대치와 관련된 오류</li> <li>• 조사 결합과 관련된 오류</li> <li>• 결합 규칙과 관련된 오류</li> <li>• 표기법과 관련된 오류</li> </ul>

4) 해당 유형은 맥락과 예시를 고려할 때, 이미 대치 오류가 아니라 ‘피동 접사 오류’의 오기 (誤記)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정확한 표현으로 갈음하여 작성하였으나, 우삼삼(2011: 52-53)에서는 ‘어미 대치 오류’로 표기하였다.

셋째, 오류 범위를 기준으로 ‘부분적 오류’와 ‘총체적 오류’로 범주화한 뒤, 오류가 나타난 문법 현상/요소를 기준으로 오류의 세부 양상을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동형과 피동형 사이의 대치 오류, 피동형의 과잉 오류 양상을 포착하여 기술하였다.

<표 6> 오류 범위 및 문법 현상/요소를 고려하여 기술한 경우

연구 제목 (연도)	오류 분석 기준	
	대범주 차원	소범주 차원
고급 학습자를 위한 피동 표현 교수, 학습 연구 (진강례, 2010)	부분적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동주격조사 오류</li> <li>• 행동주 표지 오류 : 에 의하여→에게</li> <li>• 피동사 형태 오류</li> </ul>
	총체적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동과 피동형 혼동</li> <li>• 각 피동형 간의 의미 차이 혼동</li> <li>• 피동형 과잉 사용 오류</li> <li>• 부정과의 결합에서 생긴 오류</li> <li>• 문장성분 호응 오류</li> </ul>

넷째, 오류가 나타나는 문법 현상/요소와 함께 오류의 원인이 되는 모어 전이를 기준으로 오류 양상을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 다음 <표 7>과 같이, 피동 접미사, 통사적 피동, 어휘적 피동, 조사 외에도 모국어 영향을 오류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표 7> 문법 현상/요소 및 오류 원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연구 제목 (연도)	오류 분석 기준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피동표현 교육 방안 연구 (전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동 접미사에 관한 오류</li> <li>• 통사적 피동에 관한 오류</li> <li>• 어휘적 피동에 관한 오류</li> <li>• 조사에 관한 오류</li> <li>• 모국어 영향 오류</li> <li>• 중목적어가 들어가는 경우</li> </ul>

## 2) 오류 생성 원인

해당 연구물에서 제시한 학습자 오류의 원인으로는 ‘학습자 지식의 부재 또는 부정확한 지식의 문제’, ‘잘못된 학습’, ‘부적절한 교육 내용(교재 또는 교수로 인한)’, ‘학습자 모어의 부정적 전이’를 거론하였다.

다음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피동에 관련된 규칙, 제약, 사용 맥락을 알지 못하거나 필요 지식을 충분히 지니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 ‘에 의하여’의 사용 제약을 모르기 때문
- 행위주가 유정명사일 경우에 ‘에게’가 결합된다는 사실을 모름
- 되다, 받다, 당하다가 쓰이는 상황과 환경을 모름
- 동형인 경우 혼란이 생기고, 사동과 피동 자체를 구분하기 어려워함
- 피동사 앞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
- 피동 표현인지는 알지만, 어떠한 피동 접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름.

각각의 피동 표현이 지닌 형식과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회피 현상을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 선행어에 대한 제약이 비교적 적은 되다로 일원화하여 피동문 구성 학습+선택제약 부담 회피

또한, ‘잘못된 학습 방법’을 오류의 원인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주로, ‘피동 표현’의 원리를 이해하기보다 단순한 개별 단어 암기 차원의 학습 방법을 문제 삼고 있었다.

- 피동성 표현을 통사적인 면에서 규칙화하지 못하고 피동사를 개별 단어로 학습하기 때문에 발생
- 통사적 피동 표현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어처럼 암기해서 사용

학습의 또 다른 문제로, ‘학습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재한 연유로 피동 오류가 양산되고 있음을 지적한 경우도 많았다. 이 경우에도 주로 피동 생성 원리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교재에 제시된 피동형이 제한적이고 개별의 어휘로 제시되어 있어서 규칙을 숙지하지 못해서
- 교재에 명확한 용법 및 규칙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연구가 부족함
- 사용되는 교재에 범주가 정립되지 않아 학습되지 않음
- 한국어 교재와 수업에서 별도의 규칙을 제시하지 않고 어휘로 제시되기 때문에 암기 이외에는 다른 학습방법이 없음

피동 표현에 대한 지식을 학습했더라도 노출/사용의 빈도가 적어 지식의 내재화가 일어나지 않은 점도 언급하였다.

-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동사의 피동형과 사동형을 잊어버려서 생기는 오류
- 파생적 피동을 암기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경우 잊어버림

위에서 제기한 오류 원인 외에 ‘모어 전이’를 오류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가 양산한 오류 유형을 분석하면서 오류의 원인으로 학습자 모어의 부정적 영향 문제를 살핀 경우라고 하겠다.

- 모어전이의 영향
- 일본어로 가능한 표현을 사용(모국어 간접에서 오는 언어 간 전이)
- 중국어 피동문과 구성이 달라서 영향을 받음
- 양국 언어습관의 차이로 인해 ‘때리다’에 대응하는 피동사가 없음
- 모국어에서 피동이 아닌 표현을 한국어에서 피동이라고 인지하지 못함

### 3. 학습자 오류 분석 방법

#### 1) 오류 데이터 수집 방법

파동 표현 오류 분석을 위해 국내 대학 부설 교육기관(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대학 학부 또는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국외에서는 대학 내 한국어 전공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연구 대상자는 주로 해당 교육기관의 정규 교과 과정에서 파동 표현을 학습한 중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들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의 규모는 최소 15명에서 최대 119명인 것으로 조사되어 평균 47.54명의 피험자가 연구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파동 표현의 오류 분석을 위해 각 연구에서 모집한 피험자 수, 국적, 한국어 숙달도 등의 기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모집된 피험자 수 및 기초 정보

연번	피험자 수 (명)	비고
1	-	서울 소재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2002-2003년에 한국어를 학습한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
2	20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는 일본인 학습자 16명, 한국어교육 석사과정 일본인 학생 4명, 일기 과제 및 석사과정 학습자들의 작문 과제
3	40	인천 소재의 2개 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 성별 (남 14, 여 26), 학습자 수준 (3급 10, 4급 10, 5급 10, 6급 10)
4	62	한국어 교육기관 교재 수준에 따라 (3-4급 23, 5-6급 21, 6급 수료 후 학부 및 대학원 재학 18), 성별 (남 14, 여 48), 연령 20대
5	65	한국어 초급, 중급 단계의 학습자 대상
6	45	대학원 및 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 소속 (어학연수 18, 대학원생 27), 한국어 학습 기간 (2-3년 14, 3-5년 14, 5년 이상 17)
7	15	A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8	56	국적별 (베트남 25, 중국 17, 필리핀 6, 캄보디아 3, 기타 5); 연령 (20대 31, 30대 38, 40대 4); 거주 기간 (1-2년 23, 2-3년 19, 3년 이상 14); 한국어 학습 기간 (1-2년 27, 2-3년 17, 3년 이상 12); 한국어 능력 (중급 38, 고급 18); 학습 기관 (A 다문화센터 42, B 복지관 9, C 대학교 문화연구소 5)
9	33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국가 (한국 21, 중국 12), 교육 기관 (대학 부속 언어 교육원 10, 대학원 11, 한국어 교육 기관 9, 한국어 전공 대학생 3) 수준 (3급 13, 4급 20)
10	3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를 배운 지 1-3년; 연령대는 20-25세 전후
11	119	태국 내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3, 4학년 학습자
12	70	3급에서 피동을 이미 학습한 중·고급 이상 학생 70여명의 자유 작문 자료와 시험 답안 오류 분석
13	-	한국어과 4학년과 그 이상의 고급 학습자 대상의 문어 자료
14	80	중국 내 한국어학과 전공 학생으로, A대학교 2학년 학생 40명, B대학교 3학년 학생 20명, C대학교 4학년 학생 20명

학습자 오류 데이터는 ‘쓰기 과제’ 또는 ‘테스트 과제’ 설계를 통해 수집하였다. 다음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 일기, 자유 작문 등의 쓰기 과제를 통해 오류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가 4편, 테스트 과제를 통해 오류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가 10편이었다.

<표 9> 오류 데이터 수집 방법

구분	과제 종류	연구물 수	계
데이터 수집 방법	쓰기 과제	4	14
	테스트 과제	10	

쓰기는 수업 중 활동, 숙제, 시험, 일기와 같이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생산된 학습자 자료가 수합되었다. 테스트는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과제가 설계되었으며, 각 연구물에서 단일 유형보다는 복수의 과제 유형을 채택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과제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테스트 과제의 세부 유형

구분	종류	연구물(편)	계
테스트 과제 유형	번역 과제	7	30
	피동(<->) 능동 교체 과제	5	
	언어 인식 조사	3	
	정문/비문 판단 과제	6	
	문장 완성 과제	7	
	짧은 작문 과제	2	

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번역 과제’, ‘문장 완성 과제’, ‘정문/비문 판단 과제’, ‘피동·능동 간 교체 과제’, ‘언어 인식 과제’, ‘짧은 작문 과제’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령, ‘문장 완성 과제’는 빈칸 채우기의 방식으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접사 써 넣기, 주어진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어 빈칸 채우기,<sup>5)</sup> 주어진 문장 뒤에 이어질 적절한 피동문 써 넣기 등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 유형의 세부 테스트 과제를 고안하였으며, 한 연구물당 평균 2.64개의 과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오류 데이터 분석 방법

학습자 오류의 세부 유형 및 양상,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서 기술·해석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언어 간 대조 분석이나 교재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연구 설계와 주요 분석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5) 이 경우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전환하기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원래의 연구물에서 사용한 연구방법과 명칭을 바탕으로 표기하였다.

**〈표 11〉 연구 설계 및 주요 분석 방법**

연번	자료 수집방법	연구 설계/분석 방법
1	쓰기 과제	기술해석적 연구, 오류의 원인 및 결과 판정에 대한 분류 분석
2	언어교육원 학습자들의 일기 과제 및 석사과정 학습자들의 쓰기 과제	대조 연구 및 기술·해석적 / Brown(2001)을 통한 오류의 원인 분석
3	문법성 판단 테스트	기술 해석적 연구, 문법성 판단 테스트(GJ)를 사용/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오류 빈도(%)를 오답 개수÷(조사 대상자 수×해당 문제 개수))×100
4	피동 표현에 대한 인식 조사, 번역 과제	대조 연구 및 기술·해석적 연구, 모어 전이를 중심으로 오류의 원인 분석 및 결과 판정에 대한 분류 분석
5	알맞은 피동사로 바꾸기, 정오판단과제, 피동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문장 고르기, 비문 고르기	대조 연구 및 기술·해석적 연구, 모어 전이를 중심으로 오류의 원인 분석 및 오류의 결과 판정에 대한 분류 분석, 교수이전과이후의 효과분석
6	빈칸채우기(DCT), 피동사를 능동사로 바꾸어 문장 완성하기, 번역 과제	문현 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한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 분석, 대조 분석
7	문장 번역 과제, 중국어 문장의 내용을 보고 주어진 능동사를 피동사로 변형하여 문장 채우기	기술해석적 연구, 오류의 원인 분석 및 결과 판정에 대한 분류 분석
8	알맞은 형태 고르기, 정오판단, 주어진 동사를 피동형으로 바꾸어 대화 완성, 주어진 동사를 피동형으로 바꾸어 문장 완성, 잘못 쓰인 문장을 올바른 피동 표현으로 바꾸기	기술해석적 연구, 어휘의 종류 및 문항 유형별 오류 분석
9	한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인식 조사, 사용 실태 조사; 알맞은 형태 고르기(10문항), 담화 완성형 테스트 과제(DCT)(9문항), 피동문으로 바꾸기(7문항), 문장 번역 과제(5문항)	대조 연구 및 기술·해석적 연구, 기술 통계를 통해 오류의 결과 판정에 대한 분류 분석
10	담화 완성형 테스트 과제(DCT), 문장 번역 과제	대조 연구 및 기술통계 사용: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Scheffe 방법을 통한 사후분석 / 결과 판정에 따른 분류 분석(범주별 오류, 현상에 따른 오류)
11	담화 완성형 테스트, 문법성판단 테스트, 번역 테스트, 설문조사 및 사후 면담	대조 연구 및 기술·해석적 연구, 모어 전이를 중심으로 오류의 원인 분석 및 오류의 결과 판정에 대한 분류 분석
12	교재 분석, 쓰기 과제	기술·해석적 연구
13	설문조사, 번역, 문장 만들기	기술·해석적 연구
14	한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인식 조사, 사용 실태 조사; 담화 완성형 테스트 과제(DCT), 알맞은 형태 고르기, 문장 번역 과제	대조 연구 및 기술·해석적 연구,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오류의 원인 분석 및 결과 판정에 대한 분류 분석

분석 대상이 되는 연구물들은 한국어 피동 표현 오류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을 모아 전이와 교육 내용과 결부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어와 학습자 모어 간 대조 분석’이나 ‘한국어 교재 분석’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복합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각각의 방법이 사용된 경우는 다음 <표 12>와 같이 집계되었다.

<표 12> 대조 분석과 교재 분석의 실시 사례

	학습자 모어		계(사례 수)
대조 분석	중국어	7	10
	일본어	2	
	태국어	1	
교재 분석 <sup>6)</sup>	-		11

쓰기 과제에 나타난 오류는 출현 빈도가 높거나, 연구문제에 비추어 특징적이라고 할 만한 오류를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고, 그 대표 사례를 제시하였다.

테스트를 실시한 대부분의 연구는 테스트 실시 결과로 수합된 데이터를 기술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데이터를 제시하는 방식은 각 문법 항목이나 문법 범주, 오류의 결과 판정별로 빈도 및 백분율이 선호되었다. 다만, 일부 연구의 경우 연구자별로 오류 빈도를 계산하기 위한 연구자만의 공식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각 오류 유형이나 집단별 평균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한 T - 검증(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Scheffe 사후분석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6) 국내 대학교 부설 언어교육원 교재를 분석하여 특정 언어문화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 IV. 논의 및 제언

그간의 한국어 피동 표현 오류 연구는 교재 연구와 함께 학습자 모어와의 대조 연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재 차원에서는 현재 한국어 교재 대부분이 피동 표현을 단순 형태나 어휘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재 개선 및 교수 방법을 다양하게 탐색하여 제시하였다. 대조 연구 차원에서는 주로 중국어 및 일본어권 학습자 모어의 피동 표현과 한국어 피동 표현의 차이 및 유사성을 규명하고 피동 표현 교수 시에 고려해야 할 언어적 특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성과를 토대로 차후 피동 표현 오류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류 분석 기준 설정’, ‘오류 원인 분석’, ‘오류 데이터 분석 방법’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체계화 방향을 논의한다.

### 1. 오류 분석 기준의 체계화

오류 분석은 오류를 식별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때 오류의 형식과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류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통상적으로 오류가 유발된 ①언어 형식 요소, ②오류 판정 결과, ③언어 내 또는 언어 간 전이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된다. 이 가운데 ①언어 형식의 오류는 언어 층위를 고려하여 음성,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차원의 오류로, ②오류 판정 결과는 부재, 과잉, 대치 오류로, ③언어 요인은 목표 언어 자체, 주로 목표 언어 습득의 발달 차원에서 나타나는 오류 또는 학습자 모어의 부정적 전이 오류로 다시 하위분류된다.

이처럼 다양한 오류 분류의 기준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오류 현상을 설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런데 기존의 오류 연구에

서는 오류를 분석하는 기준이 체계성을 결여한 경우가 있다. 다음 <표 13>의 예시와 같이,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 또는 서로 다른 범주/영역의 오류 분석 기준이 혼재되어 적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표 13> 오류 분석 기준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

〈예시1〉	〈예시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동 접미사에 관한 오류</li><li>• 통사적 피동에 관한 오류</li><li>• 어휘적 피동에 관한 오류</li><li>• 조사에 관한 오류</li><li>• 모국어 영향 오류</li><li>• 중목적어가 들어가는 경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능성과 능력이라는 의미 혼용 오류</li><li>• 능동사와 피동사 혼용</li><li>• 피동사를 능동사로 사용하는 경우</li><li>• 피동 표현 선택 오류</li><li>• 안'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인한 오류</li></ul>

위의 오류 분류 체계도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여러 측면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그 분류 체계가 계열성, 일관성 등을 결여하고 있어 오류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가령, <예시1>은 언어 형식 요소(예: 피동 접미사 오류 등)와 언어 전이 여부(예: 모국어 영향 오류)에 따른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즉, 전자는 오류가 유발된 피동 표현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며, 후자는 오류가 유발된 언어 내적/외적 요인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2>도 언어 형식과 의미에 따른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오류의 양상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능동사와 피동사의 부적절한 사용 문제를 ‘능동사와 피동사 혼용/피동사를 능동사로 사용하는 경우, 피동 표현 선택 오류’로 분류하고 있어 분류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앞서 기준 오류 분석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습자의 피동 오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두 가지 준거로는 ‘피동문 구성 요소 선택의 적합성’과 ‘오류 결과에 대한 판단(대치, 누락, 과잉)’ 기준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담화 차원에서 피동문 구성 시 어떠한 요소 선택에서 문제가 유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기준과, 해당 오류가 대치,

누락, 과잉 중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기준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오류 양상 분석의 체계는 다음 <표 14>와 같이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4> 오류 양상 분석의 체계

오류 현상	유형	결과에 따른 분류	예시
피동 표현	형태적 피동	대치, 누락, 과잉	접미사(이/히/리/기)
	통사적 피동		아/어지다
	'되다'류 피동		'되다', '널다', '당하다' 등
조사	피동주 조사	대치, 누락, 과잉	이/가↔을/를 에/에게↔에게/에
	행동주 조사		
주어	주어 설정	피동주 ↔ 행위주	피동주 ↔ 행위주
문형	부적절한 문형		

## 2. 오류 원인 분석의 심화

앞서 Corder(197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류를 식별한 후 기술하는 단계는 오류의 원인 설명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단계는 실상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 선후를 가리기가 어렵다.

가령, 다음과 같은 학습자 발화에 나타난 오류 기술과 원인 설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기가 물렸어요

기왕의 연구에서는 위의 예문을 연구자에 따라 ‘격조사의 잘못된 사용’, 또는 ‘피동 접사의 잘못된 사용’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오류 문장에 대응하는 정문을 ‘모기에 물렸어요.’ 또는 ‘모기가 물었어요.’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오류의 유형화는 모두(冒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

이, 오류의 복수 설명 가능성, 곧 오류문에 대치되는 정문이 복수로 설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류 유발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위 예문은 학습자가 ‘…에 물리다’라고 하는 문형을 온전히 학습하지 못했거나 피동과 능동 표현의 차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또는 이러한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피동사/피동접사의 과잉 사용의 오류를 범한 것일 수 있다. 오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에 따라 그것을 유형화하여 기술하는 내용이 달라진다.<sup>7)</sup>

이처럼 표면상으로 드러난 정보만으로 학습자 의도를 추론하고 해석하여 오류를 기술하는 일은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오류의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학습자 오류를 분류하고 양상을 기술한다면 오류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적 처치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동 표현의 오류 유형을 다음 <표 15>와 같이 ‘학습자’ 요인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인지, 학습자 언어(제1언어와 목표어), 학습자의 학습 및 교수 요인으로 대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15> 피동 표현 오류의 요인

오류 원인	유형
학습자 인지 요인	피동/능동/사동의 형식/의미기능에 대한 (변별)지식
	피동 주어 설정에 대한 지식
	피동표현(피동사/ ‘어지다’, ‘되다’류) 생성/선택 지식
	행동주 표지 선택 지식

7)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무엇이 학습자 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학습자 개인의 언어 사용에 대한 심화 분석과 종적인 접근 방식의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오류 분석의 방법에 관해서는 이후에, 특히 3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교수학습 요인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학습자) 언어 요인	언어 간, 언어 내 전이

기왕의 연구물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학습자의 피동 오류는 피동 표현의 생성/선택에 관련된 지식의 부재 또는 불충분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인지 차원의 문제일 수 있으나 학습자의 ‘학습(방법)’ 또는 이를 위해 학습자에게 제공된 교육 내용, 교수(방법) 등이 요인일 수도 있다. 또한, 학습자 제1언어의 부정적 영향 또는 목표어 습득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언어 내 전이가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상호 영향 관계에 놓여 있어, 가령, 교수학습 요인이 학습자의 지식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sup>8)</sup>

또한,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표현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인터뷰나 오류에 대한 메타언어테스트(Metalinguistic Test)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오류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방법은 외현(外現)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학습자의 표현 의도나 외현상 유사하게 보이는 오류에 내재된 실제적 오류 유발 원인을 발견하게 해 준다. 또한,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이 유발하는 ‘회피’ 오류의 문제점을 찾게 해 줄 것이다.

### 3. 오류 데이터 분석 방법의 타당화

#### 1) 연구 대상자 선정

오류 분석 결과가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오류 데이터 분석 방법의 타당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 선정, 데이

---

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표에서는 세부 요인들 간에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상호 영향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터 수집, 데이터 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연구 절차와 과정 중에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나 여타 단일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만으로 연구 대상 집단을 한정할 경우에는, 학습자의 제1언어가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전이 관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피동 표현 습득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학습자 숙달도에 대한 사전 검사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중·고급 학습자’가 연구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나 이때 ‘중·고급’에는 여러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그 수준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다. 가령, 중·고급 단계의 의미가 학습자가 소속된 한국어교육기관 내 수강 신청 기준이거나 형성 평가 통과 기준인 경우가 있었다. 대학원 학생을 ‘고급 수준 학습자’로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으나, 이때의 ‘고급 수준’이 한국어능력평가(TOPIK) 또는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과는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증된 바가 없다.

또한, 일부 연구 대상 학습자는 피동 표현을 배우지 않은 채로 피동 표현 연구에 참여한 연유로, 집단 오류율이 90%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연구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구 문제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피동 표현 오류 연구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 2) 데이터 수집

선행 연구들은 학습자의 오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쓰기 과제를 사용하거나, 오류를 도출하기 위한 테스트를 설계하였다. 총 14편의 대상 연구물 중 10편의 연구물이 테스트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4편이 쓰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쓰기 과제의 경우, 학습자들이 과제의 성격(장르, 주제 등), 과제 제시 및

수행 방법(시간, 분량, 장소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피동 표현의 실제적인 오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쓰기 과제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학습자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오류를 산출하였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부여된 과제 설계의 근거와 과제 설계의 세부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테스트의 과제 설계를 통해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오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연구물들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ity Judgement Test)’, ‘답화 완성형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번역 과제’, ‘능동문과 피동문 전환’ 등을 주로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테스트는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에 따라 다수의 피동 표현 오류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오류 현상이면에 내재하는 복합적인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드러내므로 보다 다양한 테스트 과제 및 문항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 3) 데이터 분석 방법

단순 정오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경우 비교적 정답률이 높게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 및 학습자가 일관된 응답을 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통계적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기술통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문항 유형별로 학습자의 응답 정확도가 다르다는 점을 기술할 때 정오판단 문항과 사지선다형 문항 간 정답률의 확률적 기댓값이 다르다는 체계를 결여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 정오판단의 오답률은 66%이지만, 직접 피동 표현 형태를 쓰는 문항에서는 오답률이 각각 81%, 86%로 나타났음을 들어 맥락 속에서 피동 표현을 암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자 응답률 및 정답률이 종속적 변인으로서 영향을 받

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자가 ‘정오판단’ 혹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가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정오판단 테스트 과제의 경우는 문법 판단의 정확도를 계산할 때 ‘맞다(yes)’, ‘틀리다(no)’라는 형식이 갖는 50%의 우연확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정미란·황인아(2007)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호탐지분석(signal detection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비문의 오류를 탐지하는 능력을 측정할 때, 정문을 틀렸다고 판단하는 오경보(false alarms: 오류 오경보)에 대해 상대적인 가중치를 주는 A' 점수<sup>9)</sup>를 적용한 바 있다. 이처럼 단순 기술통계를 사용하더라도, 통계적 타당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판단 방법 및 근거, 점수 산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술 통계 처리 시 충분한 데이터 수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통계적 근거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작문 과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아예 부재하거나 지나치게 적은 규모로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가 많았다. 2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을 연구하는 경우 오류율 및 결과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오류 양상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거나 모집단의 편향된 선택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단순 설문 통계보다 학습자의 현 수준 및 학습 환경에 대한 문화 기술지적 설명, 인터뷰나 사후 면담을 병행할 때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9) 이러한 채점방식은 Linebarger, Schwartz, & Saffran(1983), Fowler (1988), Wulf- feck(1993), Rice, Wexler, & Redmond(1999), Miller, Kail, Leonard, & Tomb- lin(2001), Hayiou-Thomas, Bishop, & Plunkett(2004), 임종아·황민아(2009) 등의 연구들에서 문법성 판단 점수로 사용되었다. 해당 A' 공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 = 0.5 + (y - x)(1 + y - x)/4y(1 - x)$$

$$0.5 \leq A' \leq 1$$

$x$  = 정문을 틀렸다고 한 비율 (*proportion of false alarms*)

$y$  = 비문을 틀렸다고 한 비율 (*proportion of hits*)

## V. 결론

오류 연구는 ‘오류’가 갖는 부정적 함축 의미에도 불구하고 제2언어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규명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자 연구 방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를 메타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오류 이론을 고려하여 오류의 양상 및 범주 체계를 설정하는 과정 중에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피동 표현이라는 특정의 문법 습득 중에 나타나는 제2언어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 주목하여 적절하고 합당한 오류 체계화 및 위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실행된 학습자 피동 오류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오류 판정, 기술, 설명을 위한 분석 기준, 체계, 방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이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피동 표현 습득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적절하게 유형화되고 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학습자의 실제 언어 말뭉치를 토대로 오류 분석의 체계 및 방법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를 메타적으로 분석하고 수렴하여 피동 표현 오류의 판정, 기술, 설명에 필요한 체계화 방향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언에 기반을 둔 피동 표현 오류 연구의 후속 작업을 통해 오류 분석 체계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피동 표현 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8. 7. 31. 투고되었으며, 2018. 8. 2. 심사가 시작되어 2018. 9. 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곽옥(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방안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박지은·서현주·서혜선·손희정·신채민·이윤재·장보형·허대석(2011), 『NECA 체계적 문헌 고찰 매뉴얼』,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
- 뇌뢰(2012),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사마와디(2011),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애(2015),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교육 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삼삼(2011),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수 방안: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옥(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연구: 한·중 피동 대조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배(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2), 「한국어 오류 판정과 분류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3(1), 175-197.
- 이효숙(2008), 「한국어 교육에서의 효율적인 피동 교수 방안: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문화』 4(3), 221-243.
- 이훈호(2015), 「한국어 오류 분석 연구의 동향 분석 연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 연구』 29(2), 107-135.
- 임종아·황민아(2009), 「초등학교 아동의 다시말하기에서 나타난 mazes 특성: 학년과 담화유형에 따른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14, 349-362.
- 장영개(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나영(2003),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성 표현의 교수 모형」,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천(2013),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피동표현 교육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란·황민아(2007),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문법성 판단: 조사 오류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2(4), 587-606.
- 주위나(201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피동문 오류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강려(2010), 「고급 학습자를 위한 피동 표현 교수, 학습 연구」, 『한국(조선)어교육연구』 7, 345-360.
- Burt, M. K. (1975), "Error analysis in the adult EFL classroom", *Tesol Quarterly* 9(1), 53-63.
- Corder, S. P. (1967), "The significance of learners' errors",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5(4), 161-170.
- Corder, S. P. (1974), *Error analy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rder, S. P.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ulay, H., Burt, M., & Krashen, S. (1982), *Language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s, R. (2008),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owler, A. (1988), "Grammaticality judgements and reading skills in grade 2", *Annals of Dyslexia* 38, 73-94.
- Hayiou-Thomas, M. E., Bishop, D. V., & Plunkett, K. (2004), "Simulating SLI: General cognitive processing stressors can produce a specific linguistic profil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 1347-1362.
- Hinkel, E. (2018), "Error analysis", In J. I. Lontas, (Ed.), *The TESOL encyclopedia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New York, NY: Wiley - Blackwell.
- James, C. (1998), *Errors in language learning and use: Exploring error analysis*. London: Longman.
- Linebarger, M. C., Schwartz, M. F., & Saffran, E. M. (1983), "Sensitivity to grammatical structure in so-called agrammatic aphasics", *Cognition* 13, 361-392.
- Miller, C. A., Kail, R., Leonard, L. B., & Tomblin, J. B. (2001), "Speed of processing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 416-433.
- Nassaji, H. (2018), "Teaching grammar & teaching vocabulary", In J. I. Lontas(Ed.), *The TESOL Encyclopedia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New York, NY: Wiley - Blackwell.
- Rice, M. L., Wexler, K., & Redmond, S. M. (1999), "Grammaticality judgement of an extended optional infinitive grammar: Evidence from English-speaking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2, 943-961.
- Richards, J. C. (1971), *Error analysis and second language strategies*, Québec: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Bilingualism.
- Wulfeck, B. (1993), "A reaction time study of grammaticality judgements in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 1208-1215.

##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 분석 체계 및 방법 고찰

김호정, 이원기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에 대한 기왕의 논의를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서 분석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 분석의 합리적 준거 및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학습자의 피동 표현 오류를 분석한 선행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고, 해당 논고에서의 오류 연구 체계 및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피동 표현 오류 연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석 체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피동 표현 오류 분석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의 첫 번째 단계로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어교육 피동 표현 오류를 연구한 논문 중, 학습자의 실제 오류를 수집하고 분석한 논문을 선정하고, 해당 논고의 학습자 오류 분석 체계 및 오류 분석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어, 한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오류 연구의 성과와 함께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오류 분석 연구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오류 분석 기준의 체계, 오류 원인 분석, 오류 데이터 분석 방법 측면에서 기존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포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오류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자 선정,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방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여 타당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피동 표현, 오류 분석, 오류 설정 기준, 오류 분석 방법, 오류 분석 체계

## ABSTRACT

# A Systematic Review on the Criteria and Methods of Error Analysis in Korean Language Learner's Passive Expressions

Kim Hojung, Lee Wonki

The objective of this systematic review is to examine the existing literature and highlight the current criteria for judging and analyzing errors in L2 Korean passive voice. This systematic review i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14 primary studies obtained after utilizing a search strategy for selecting papers found on a web database. we found tha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and robust grammatical error analysis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errors.

We present several prominent and useful methodologies that facilitate a precise description of errors. Errors could be better understood and classified if considering 1) the “language area and word class” affected, and 2) categories of error: omission, addition, and wrong substitution. When demonstrating errors related to learners’ intention, several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given context. In collecting and examining data, it is necessary for researchers to obtain 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correct use of research methodologies in order to gain desirable results.

**KEYWORDS** Passive Expression, Error Analysis, Criterion of Error, Method of Error Analysis, Classification of Error